

공간의 차별적 분할과 탈식민적 욕망: 미국 흑인극을 중심으로*

정 병 언
부산대

I. 서론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는 『도시의 해석들』(*Urban Interpretations*)에서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여 “공간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실재란 존재하지 않는다”(There is no unspatialized social reality 46)고 지적한다. 이 지적은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실재가 공간을 생산하며, 공간 또한 사회를 구조화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산물로서의 공간조직이라는 공간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시간보다는 공간을, 역사보다는 지리를 우선시하던 탈근대적이고 비판적인 인문지리학이 등장하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대 사회이론은 역사적 상상력에 특권적 위치를 부여하여 사회적 존재를 시간의 해석적 맥락속에 위치시켜 세상을 이해하였는데, 그 저변에는 의미와 행위를 시간적 성질과 사회적 존재의 경험으로 환원하는 역사주의 논리가 깔려 있었다. 역사주의는 소자가 지적하듯이 “사회생활과 사회이론을 지나치게 역사적으로 맥락화하여 지리적 혹은 공간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덮어버리고 주변화시키는”(Postmodern Geographies 15)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비판 인문지리학의 등장으로 역사주의의 전통에서 무시되었던 공간의 해석적 의미는 사회를 읽어내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공간이란 단순히 어떤 물리적 요소의 특정한 배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 사회적 차원에서 공간은 단지 대상의 객관적 질서나 인간의 주관적 인지체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실천의 형식인 것이다. 공간의 사회적 생산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자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인데, 그는 “사회와 공간의 관계들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상호의존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생산관계가 공간을 형성하고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Postmodern Geographies 81)는 사회-공간 변증법의 기본 전제를 제시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공간과 사회는 상호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발전해나가며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03-A00187)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온전한 전체인 셈이다.

미국 흑인극에 형상화된 흑인의 일상적 공간은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특정한 욕망의 배치의 산물이다. 이 공간은 특정한 양상으로 배열되어 사회를 조직하고 재생산하며, 여기서 형성된 물리적, 상상적 거리는 흑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점에서 흑인공간은 거리두기라는 차이의 전략으로 지배체제의 권익을 영속화하고자 하는 백인의 집단적 욕망이 작동하는 정치의 장소인 셈이다. 앙리 르페브르는 「공간의 정치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Politics of Space”)에서 “공간은 역사적, 자연적 요소로부터 형성, 구조되어 왔지만, 이것은 정치적 과정이었다. 공간은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31)라고 주장한다. 공간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에서 지배 계급에 유리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일상생활은 재코드화되고 공간은 계층적으로 분할되고 차별화된다. 마이클 키스(Michael Keith)와 스티브 파일(Steve Pile)이 「정치의 장소」(“The Place of Politics”)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간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별의 논리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은폐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24). 미국 흑인극은 미국흑인에 의한 공간의 실천에 있어서 공간이 어떻게 생산, 재생산, 그리고 소비되며, 또 이 과정에서 은폐되어온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극적 양식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공간 생산의 메커니즘에 작동하는 백인 지배이데올로기의 억압성을 보여주고 이를 비판적 입장에서 조명하는 일종의 반항담론이다.

공간이론을 통한 미국 흑인극 읽기는 미국흑인의 일상적 공간에 작동하는 백인 지배체제의 통제의 양상뿐 아니라 백인의 통제에 맞선 흑인의 저항성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읽어내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읽기는 공간 생산이 갖는 미학적 측면보다는 공간의 배치가 갖는 정치성을 밝히고, 미국 흑인극에 내재된 미국의 복잡한 흑백갈등의 현상을 탈식민주의적 문화이론의 틀 안에서 공간성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작업이다. 사회와 문화를 공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러한 읽기는 공간 생산의 정치적 함의를 밝히는 작업일 뿐 아니라 문학 텍스트를 문화지리학에 입각한 사회학적 텍스트로 접근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간성의 담론을 기반으로 미국 흑인극—랭스턴 휴즈(Langston Hughes)의 『물라토』(*Mulatto* 1935), 아미리 바라카(Amiri Baraka)의 『노예선』(*Slave Ship* 1967), 그리고 수잔-로리 파크스(Suzan-Lori Parks)의 『승자/패자』(*Topdog/Underdog* 2002)—에서 ‘공간의 정치’가 어떻게 인종, 권력, 그리고 탈식민적 욕망과 연관되어 나타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 작업은 피터 잭슨(Peter Jackson)이 주장하는 문화지리학적 방법으로서 “어떻게 문화가 역사적으로 우연하고 지리적으로 특정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23). 흑인의 일상적 공간에 가해지는 지배권력과 사회통제의 지형을 공간이론을 통해 읽어내는 이러한 문화지리학적 방법은 미국백인 및 흑인의 문화논리를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틀로 기능한다. 특히 흑인의 일상적 공간이 백인의 차별적 공간정치에 의해 어떻게 ‘내부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 공간으로 영속화되는가, 또 이러한 백인의 ‘공간의 정치’에 맞선 흑인의 탈식민적 욕망이 어떻게 ‘차이의 문화정치’를 구현하는가를 밝혀낼 것이다.

II. 『물라토』: 정치의 장소로서 저택의 앞문

미국 흑인공간에 작동하는 차별적 공간화는 광범위한 의미의 권력에 의해 형성되며, 실제하

는 공간은 주로 백인의 공간담론을 통해 출현하게 된다. 백인의 차별적 공간 개념은 흑인을 자신들에게 ‘적합한’ 공간에 가두어 두며 그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지배담론이 된다. 흑인의 삶을 구조적으로 조건짓는 지배 담론체계는 라클라우(Laclau)와 무페(Mouffe)가 지적하듯이, 인종이나 피부색과 같은 “떠도는 기표들”(floating signifiers)을 고정시켜 담론의 장을 지배하고, “차이의 흐름”(the flow of differences)을 차단하여 중심을 구성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112). 그러한 담론의 체계는 많은 부분 차별적 공간의 배치를 생산하고 확정하는 틀인 셈이다.

『물라토』는 피부색에 기초한 공간개념이 흑인의 일상적 삶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흑인에 대한 백인의 차별은 백인 정치가 프레드 히긴스(Fred Higgins)가 친구이자 플랜테이션의 주인인 커널 토마스 노우드(Colonel Thomas Norwood)에게 우체국에서 백인 직원을 상대로 한 로버트 루이스(Robert Lewis)의 소란 행위를 문제삼는 데서 잘 드러난다. 로버트는 노우드와 흑인 여성 코라 루이스(Cora Lewis) 사이에 태어난 물라토인데, 그가 흑인에게 합당한 공간을 심하게 벗어났다는 것이다. 히긴스는 “이 곳에선 검둥이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A darkie's got to keep in his place down here 10)라고 말하며 “위치”(plac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가 말하는 “위치”는 물리적 공간, 직업, 호칭, 예의범절 등과 관련된 상징적 기표로서 흑인의 위치를 정해주는 권력이자 흑인의 위치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공간성의 담론이다.

흑백간의 인종차별이 공간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플랜테이션에서 흑인과 백인의 거주지역은 저택과 오두막집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백인 농장주 노우드, 그와 흑인여성 코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윌리엄(William Lewis), 로버트, 그리고 샬리(Sallie Lewis)—과 노우드의 시중을 드는 샘(Sam)과 라이보니아(Livonia)가 이 저택에 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흑인들은 오두막집에 살고 있다. 저택과 오두막집 사이의 공간적 거리만큼이나 흑백간에는 인종적 차별이 존재한다. 공간적 거리는 백인 지배계층이 생산한 차별의 수단이지만, 이는 흑인을 생산하고 흑인의 일상적 삶을 구조적으로 조건짓는 수단인 것이다.

공간적 거리는 저택 안에서도 흑백간에 엄격하게 유지되는 일종의 규범이다. 저택의 문은 이분법적으로 앞문과 뒷문으로 차별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앞문은 흑인에게 금지된 공간이다. 로버트를 제외한 이 저택의 흑인들은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샬리와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다. 흑인들을 뒷문에 위치시키는 것은 흑백간의 차별화를 공간적으로 시각화시켜 흑인들로 하여금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권력인 셈이다. 경험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를 근거로 마련된, 그리고 역사적으로 구성된 뒷문을 통해 정치적 배제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배제 뒤에는 백인의 “위치적 우월성”(Said 22)이라는 전략이 작동한다. 저택의 앞문은 흑인들에게 결코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배제의 규범이 적용되는 금지의 공간이다. 이러한 규범은 흑인의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흑인을 생산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이다. 백인 지배계층이 설정한 인위적인 공간구조에서 갈등을 겪고, 또 이로부터 탈피하고자 시도하는 인물은 흑인과 백인의 피가 반씩 섞였으나 겉으로는 백인처럼 보이는 로버트이다. 그는 흑백간의 이항대립이 맞서는 틈새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흑인 개인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 지배체제가 설정한 물리적, 상상적 지리의 위계적 구조가 낳은 결과이다.

공간의 정치를 통한 백인의 통제에 대한 흑인의 반응은 크게 두 부류, 즉 통제에 순응하는 인물과 이에 저항하는 인물로 나뉜다. 전자는 코라와 장남 윌리엄을 비롯한 대부분의 흑인들이며, 후자는 로버트뿐이다. 코라는 현재의 공간적 구도를 깨뜨리고 싶어하지 않는 인

물로서 자신의 성을 따른 로버트에게 그에 대한 노우드의 부정적 인식을 알려주며 그를 아버지로서보다는 백인 농장주로 대할 것을 요구한다. 윌리엄도 그의 어머니와 같은 의견이다. 그는 로버트에 대해 “남부에서 흑인은 전적으로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죠. 안 그래요, 엄마?”(A nigger's just got to know his place in de South, that's all, ain't he, ma? 12)라고 말하며 흑인에게 부여된 공간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백인의 억압체제에 길들여진 윌리엄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는 동생의 행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한다. 하지만, 로버트는 윌리엄에게 백인 지배체제가 생산한 공간에 종속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선언한다.

(1)

. . . 샘과 라이보니아와 형과 엄마와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위치를 가질지 모르지만, 난 아냐. (진지하게)
내 위치는 어느 누가 정하는 게 아냐.

(2)

. . . maybe Sam and Livonia and you and mama and everybody's got their places fixed for 'em, but not me. (seriously) Nobody's gonna fix a place for me. (13)

(3)

백인 지배체제는 일반적으로 흑인을 위한 공간을 “정해주며”(fix) 흑인을 생산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흑백관계보다 혈연관계를 더욱 우선시하며 백인에 의해 “위치”지워지는 흑인으로 생산되기를 거부하는 데서 그의 저항성을 읽을 수 있다.

백인이 정해진 “위치”에 대한 도전은 로버트가 노우드를 “아버지”라 부른 것, 흑인에게 금지된 앞문을 사용한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인사한 것을 꼽을 수 있으며, 또 우체국에서 백인직원에게 대들면서 소란을 피운 것 등으로서, 이는 노우드와 로버트 간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다. 혈연관계보다 백인의 우월성을 더 중요시하는 백인들에게 있어서 호칭은 차별화의 중요한 수단이다. 로버트가 노우드에 대해 “부친”(my old man 13)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노우드는 결코 그를 “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는다. 코라에게 로버트를 “우리 아들”이 아닌 “네 아들”(that boy o' yours 11)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노우드는 로버트와 자신을 혈연적으로 연관짓지 않는다. 노우드는 혈연보다는 인종의 차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로버트]에게 그의 위치를 가르치고 그 애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려주고자”(teach him [Robert] his place and make de boy know where he belongs 12) 애쓰는 인물이다. 그가 흑인의 위치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흑백간의 차별을 영속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금지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노우드와 로버트가 갈등하는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로버트가 금지된 앞문을 이용한 것이다. 공간의 차별적 사용을 고수하는 노우드가 앞문을 사용하는 로버트에 대해 연속해서 세 번이나 “여기서 나가”(Get out of here! 15)라고 소리치는 데서 공간에 대한 그의 집착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백인 지배체제는 흑인이 위치해야 할 공간뿐 아니라 흑인과의 공간적 거리를 생산한다. 흑인의 일상적 공간은 이러한 차별적 거리에 기초하여 형성된 공간이다. 물리적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흑백간에 주고받는 인사에서도 이러한 차별적 거리가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플렌테이션 내의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해야 한다. 하지만, 로버트가 6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방학을 맞아 플렌테이션으로 돌아와서는 백인들처럼 노우드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로써 인사하고자 한다. 로버트의 행위는 흑백간의 공간적 거리를 해체하려는 몸짓인 것이다. 노우드는 로버트의 인사방식에 등을 돌려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데, 그것은 그가 그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보다는 백인과 흑인의 관계로 인식하며 로버트의 행위를 백

인의 공간개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전은 공간개념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저항이자 이에 기초한 현재의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플렌테이션을 벗어난 곳에서의 제도적 교육은 흑인에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백인들의 입장이다. 허긴스는 로버트가 우체국에서 벌인 소란 행위를 그에게 부여된 “위치”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학교교육의 결과라고 본다(10). 노우드 역시 교육이 지닌 전복적 기능에 대해 우려하는 인물이다. 그는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샐리에게 “그 학교에서는 행실 바르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백인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치지?”(Do they teach you in that school to have good manners, and not be afraid to work, and to respect white folks? 8)라고 말하면서 백인에 대한 존경을 유독 강조한다. 이는 샐리가 흑인으로서 백인의 공간개념에 저항하지 않기를 은근히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로버트가 자신에게 대드는 것을 교육의 탓으로 돌리는 노우드는 로버트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다른 흑인들과 마찬가지로 농장에서 일을 하도록 명령하는데, 여기서 그가 흑백관계에 있어서 교육의 전복성을 우려하는 듯하다.

로버트는 흑인을 정의하는 백인의 기준은¹⁾ 무시하고 자신의 백인쪽 피만을 고려한 채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로버트는 “난 반이 흑인이 아니라 반이 백인인 것처럼 행동 할거야”(I'm gonna act like my white half, not my black half. 13)라고 선언하며, 코라에게 눈과 얼굴색이 노우드와 닮았다고 확신하며 심지어 “노우드의 아들이자 상속인”(13)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백인들의 공간개념이 사회의 규범으로 통용되는 사회에서 그러한 주장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백인 지배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그의 어머니나 형도 로버트의 공간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코라는 로버트에게 노우드 앞에서는 “네가 백인이 아니니 흑인처럼 말해야 돼”(Talk like you was colored, 'cause you ain't white 15)라며 흑인에게 부여된 규범에 따라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어머니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로버트의 행위는 조지아 같은 남부의 인종차별지역, 특히 플렌테이션에서는 백인의 공간개념에 대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저항성은 백인의 공간개념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노우드를 목졸라 숨지게 하는 데서 극에 달한다. 백인의 억압적 공간성에 대항하는 흑인의 문화논리는 백인 지배체제 하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단지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로버트의 폭력행위는 해방의 공간을 향한 그의 의식이 반영된 저항적 문화논리의 산물이다. 노우드를 살해한 후 백인들에게 집단적으로 쫓기던 로버트가 결국 코리의 방에서 자살함으로써 흑인의 해방을 향한 그의 의지는 결국 백인 억압체제에 의해 좌절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III. 『노예선』: 감금의 은유로서의 노예선

『물라토』가 플렌테이션 내의 흑백갈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노예선』은 흑인의 역사를 거시적 관점에서 노예역사의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흑인의 경험을 담아내고 있다. 『물라토』와 마찬가지로 『노예선』의 물리적 공간은 은유로서의 노예선으로서 일종의 감금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흑인을 가두어 두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감

1)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여러 주에서는 흑인을 정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흑인의 피가 1/16이 섞인 인물은 누구나 흑인으로 간주하며 백인은 타인종과의 결혼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Hatch and Shine 4).

시권력으로서 푸코가 말하는 일종의 팬옵티콘이다. 서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노예선에 실려 플랜테이션이라는 미국의 차별적 공간에 감금된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노예선에 실리게 될 때, 그들은 자율적 주체이기보다는 백인 목소리 1이 말하듯 “한 배 가득한 검은 금”(133)이나 다름없다. 말하자면, 노예상에게 흑인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을 실은 노예선은 그들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형상화한 식민공간이다.

미국의 플랜테이션도 공간의 분할과 거리의 생산을 통해 형성된 억압의 공간으로서 흑백간의 차별이 제도적으로 영속화되어 있는 지점이다. 이 극은 흑인이 노예선에 실려 플랜테이션에 감금되던 초기를 기술하고 있지만, 바라카는 백인 선원들을 노예 경매인으로, 또 “영원한 압제자”(131)로 지칭된 플랜테이션 주인으로 변화시켜 식민상황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예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흑인의 일상은 여전히 물리적 정신적 압제가 가해지는 내부식민공간이다. 이 점에서 미국흑인들은 노예선이나 플랜테이션이라는 은유적 감옥에 감금된 노예나 다름없다. 스테판 브레히트(Stefan Brecht)가 지적하듯이, 이 극은 미국흑인의 역사를 이용하여 그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그려내고 있다(215).

흑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들에게 고유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못지 않게 백인의 가치가 지닌 권위를 탈중심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극이 진행될수록 사회적·정치적, 문화적 공간에 대한 권위를 점차로 회복하게 되자, 흑인들은 백인의 행위를 심판하는 일종의 재판관의 입장에 서게 된다. 심판의 대상은 백인 압제자와 흑인 배반자들인데, “늙은 노예 탐”(Old Tom Slave)과 현대식 사업자 복장을 한 “젊은 탐”(New Tom)인 목사이다. 특히 목사는 “우리는 . . . 끝까지 비폭력적이며 . . . 우리 니그로들은 동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We will be nonviolenk . . . to the last . . . We Kneegrows are ready to integrate 142)고 주장하는 인물로서 “흑인 신”(Black God) 대신 “백인 예수”(white Jesus)를 찾는 동화주의자이다. 흑인들은 그를 살해하고 그의 머리를 노예선의 갑판에 던진다. 백인 압제자들과 흑인 배반자에 대한 제의적 살해는 흑인들이 더 이상 백인의 공간개념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폭력은 백인의 가치와 신념뿐 아니라 현존하는 지배의 메커니즘을 파괴하려는 상징적 행위인 것이다. 더구나 인종적 자부심으로 무장한 흑인들은 해방의 공간을 열망하는 노래를 부른다.

1.

얼마나 멀리 있으며,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세계가 너와 나의 것이 되고

.....

세계가 막 시작됐을 때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장소를 갖게 될 그 날이, 형제여?

2.

How far, how long will it be
When the world belongs to you and me

.....

When we gonna take our own place, brother
Like the world had just begun? (143)

3.

이 노래는 백인에 의해 정해진 감금의 공간을 해체하고 흑인의 자율적 공간을 구축하려는 저항적 의지의 표현이다.

해방공간에 대한 흑인의 집단적 열망은 부갈루요루바(Boogalooyoruba)라는 제의적 춤에서 절정을 이루는 데, 이 춤은 인물들과 관객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제의적 춤을 통해 노예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오랫동안 사라졌던 일종의 공동체 의식이 확립된다. 여기서 미국흑인들은 개별성을 극복하고 “우리”로 태어나며, 특히 “우리 자신의 장소”는 미국흑인들의 결속을 위한 새로운 자율적 공간이 된다. 미국흑인들의 공동체를 위한 결속을 강조하는 『노예선』은 바라카가 말하는 “혁명극”(Revolutionary Theatre)으로서 관객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주입시키는 이념적 무기이다. 새뮤얼 헤이(Samuel A. Hay)에 의하면, 이 극에는 “연극을 통해 대중들을 교육으로 혁명화하려는 바라카의 노력”이 형상화되어 있다(97). 말하자면, 이 극은 흑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억압적 상황을 인식시키고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집단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바라카는 노예선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상황을 조명, 음향, 그리고 냄새라는 극적 효과를 통해 나타내며, 이를 통해 흑인의 자율적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의 현재상황을 재현하는 소우주로서의 노예선의 상황은 “스타카토의 드럼소리, 무시무시한 비명소리”(132)로 가득 차 있다. 이 소리는 미국흑인의 고통을 음향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고통에 대항하는 블루스 음악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러한 속박을 끊고, 흑인이여 일어나라”(Rise, Rise, Rise/ Cut these ties, Black Man Rise 143)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미국흑인들에게 전복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적인 힘으로 기능한다. 바라카는 『블루스 민족』(Blues People)에서 블루스 음악은 “가치의 기준을 재정의함으로써 사회내에서의 역할을 바꿔보려는 시도”(219)로서 정치성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블루스 음악은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흑인들에게 고유한 장소를 창조할 것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전복적이다. 흑인들이 이룩하는 해방공간은 영어 대신에 요루바(Yoruba)어가 사용되는 조화로운 공동체이다. 드럼과 함께 요루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문화적 모델을 통해 미국흑인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여 흑인의 자율적 공간을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드럼, 음악, 요루바 언어에 함축된 아프리카적인 것은 바로 관객으로 하여금 미국흑인의 문화적 정체성의 뿌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상징이 된다.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흑인은 현재 인종차별이라는 사회적 구조속에서 노예선이라는 내부식민공간에 위치해 있다. 백인지배에 대항하는 미국흑인의 집단적 항거는 바로 노예선을 유토피아적인 “우리 자신의 장소”(143)로 바꾸고자 하는 탈식민적 행위이다. 흑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공간은 “국가”(Nation)로서 이는 흑인 민족, 문화, 및 종족을 상징하는 흑인의 자율적 공간이다 (Baraka, *Home* 210-11). “국가”라는 은유적 공간은 “우리 자신의 장소”로 표상된 흑인의 해방 공간인 썸이다. 이 극의 마지막 무대 지시문에는 관객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일어나라」(“Rise Up”)라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무대를 해방공간으로 전환시킨다고 적혀있다. 이제 노예선이라는 억압의 공간은 해방공간으로 바뀌게 되며, 그 속의 미국흑인은 비로소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탈식민적 욕망에 기반한 차이의 문화정치에서 중요한 문제는 억압을 견뎌내는 방식이 아니라, 흑인의 해방의식을 고양하는 주체성의 확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흑인들은 그들 나름의 전략으로 백인문화와 구별되는 새로운 차이의 문화에 기초한 “저항의 공동체”(Minh-Ha 120)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인들이 설정한 차별적 공간 속에서 새로운 문화전략을 바탕으로 차이를 재구성하려는 미국흑인들의 노력은 이 작품의 전체 구조를 이룬다. 흑인 스스로가 “주변을 선택할” 뿐 아니라 정치적이면서 지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흑인 자신을 자

울적 주변부로 규정하는 것은 이항대립적인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흑인들은 재중심화된 주체성, 즉 중심이면서 동시에 주변이 되는 공간, 벨 훅스(bell hooks)의 용어를 빌자면 “저항의 장소, 즉 과격한 열림과 가능성의 장소”(153)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극에서 미국흑인들이 선택한 자신들의 주변공간은 새로운 대안적 지리로서의 ‘그들 자신의 장소’이자 미국의 탈식민적 공간인 셈이다.

IV. 『승자/패자』: 흑인공간과 “역사의 무계”

『물라토』나 『노예선』의 극적 배경이 분명하게 감금의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면, 『승자/패자』에서는 감금의 정도가 보다 약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이전의 두 작품에 보이는 흑백간의 갈등도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과 그의 암살범 존 윌크스 부스(John Wilks Booth)의 이름에서 따온 두 명의 흑인인 링컨과 부스는 노예의 역사와 연관된 역사성을 띤 인물로서 내부식민지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은유적 감옥에 갇혀 있다. 1960년대의 어느 도시에서의 며칠을 다루고 있는 『승자/패자』는 사회를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회리얼리즘이 아니다. 이 극은 랩이 작품 전반에 도입되고, 단지 두 명의 인물만이 등장하는 아방가르드적인 극으로서 로버트 브루스틴(Robert Brustein)이 지적하듯이 인종문제와 관련된 “미국흑인의 상황을 비교훈적으로 극화시킨”(25) 작품이다.

『승자/패자』에서 형제간인 링컨과 부스가 위치한 물리적 공간은 그들의 단칸방, 어릴 적 살았던 아파트, 그리고 그들의 일터인 게임방과 거리의 도박공간처럼 주변화되어 있다. 링컨과 부스가 어릴 적 살던 곳은 앞뒤 뜰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는 아파트로서 주변화된 공간인데, 현재 그들의 상황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그들의 단칸방은 화장실이 없는 데다 수도물도 나오지 않으며 부스의 침대와 링컨이 침대 대용으로 길게 펴서 사용하는 의자 하나가 있는 폐쇄공포증적 공간이다. 링컨은 결혼이 파기된 이후 부스가 거주하는 좁은 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 의자를 침대로 사용하며 부스의 애인 그레이스(Grace)가 찾아오는 날이면 자리를 비켜줘야 할 처지이다. 차별적 공간화가 이루어진 또 다른 지점은 바로 링컨과 부스가 각각 일하는 게임장과 도박을 벌이는 거리이다. 링컨은 현재의 부스와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속임수로써 돈을 버는 카드도박사였지만, 그의 동료가 총에 맞아 죽고 난 다음 그 일을 그만 두었다. 카드 도박은 불법적인 것으로서 백인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직업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 백인 위주로 직업이 분할된 공간에서 흑인에게 허용된 직업은 아주 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남을 즐겁게 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시중드는 역할뿐이다. 도린 매시(Doreen Massey)는 『노동의 공간적 분할』(*Spatial Divisions of Labour*)에서 “사회적 관계가 공간에 펼쳐져 있다”(2)고 지적한다. 직업은 사회계층과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할되며, 이러한 차별화는 공간적으로 특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게임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흑인들은 인종차별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착취당하는 인물들이다.

링컨은 게임장에서 링컨 대통령의 암살 장면을 재연한다. 관이 높은 모자를 쓰고 가짜 수염을 붙이고 링컨 대통령으로 분장한 그는 등뒤에서 쏘는 딱총에 맞아 암살당하는 시늉을 한다. 이 직업은 합법적이긴 하지만, 동생 부스는 이 일을 아주 굴욕적인 것으로 여긴다. 사실, 링컨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백인의 부를 축적시켜주기 위한 노예-기계에 다름 아니다.

링컨 대통령은 흑인들에게는 노예제도를 타파하고 해방을 가져다 준 영웅적인 인물이다. 링컨이 흑인들의 노예해방을 상징하는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는 장면을 재연하도록 한 것은 흑인들이 자율적 주체로서 거듭나는 것을 은연중에 거부하고자 하는 백인들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은 링컨에게 굴욕감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으로 달리 방도가 없었던 그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직업이다. 링컨은 여기서 주급으로 300달러 정도 받는데, 이 돈으로 방세, 전기세, 그리고 식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벌어들인 수익으로는 생계조차 꾸려나가기에 빠듯하다. 게다가 그가 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그가 받는 주급은 백인에 비해 차별적으로 지급됨을 알 수 있다.

링컨: 그들이 내 앞에 일했던 친구에 대해 말했어—어느 날 그는 복장을 벗어 멋지게 걸어 놓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이 내게 그 자리를 제시할 때 물론 내가 화장을 조금 해야 하고 다른 녀석보다 보수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지.

부스: 계속해서 말해봐. “백인” 말이지. 형에게는 백인보다 적게 준다는 말이지.
가.

Lincoln: They said thuh fella before me—he took off the getup one day, hung it up real nice, and never came back. And as they offered me thuh job, saying of course I would have to wear a little makeup and accept less than what they would offer a—another guy—

Booth: Go on, say it. "White." Theyd pay you less than theyd pay a white pay. (27)

나.

흑인으로서 얼굴화장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받게 되는 보수는 백인보다 적은 수준이다. 차별적 공간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백인 위주의 제도나 사회적 규범 등은 흑인에게는 억압으로 기능한다. 흑인주체로서의 개인은 정치·경제적 과정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제도나 규범에 의해 생산된 공간을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이나 흑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공간적 제약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광범위한 의미의 권력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생활공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흑백간의 조화로운 통합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백인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통합일 따름이다. 게임장은 흑백간의 인종적 차별이 공간적으로 형상화된 공간으로서 백인의 억압이 끊임없이 가해지는 물리적, 정신적 감금의 공간이다. 게임장은 링컨이 생활에 필요한 돈을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곳이지만, 인종차별적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지점이다. 밀랍인형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링컨은 밀랍인형이 도입되자 직장을 잃게 된다. 이 점에서 링컨은 한 인간이기보다는 단순히 백인들의 부를 위해 착취당하는 노예-인형에 지나지 않는다.

부스는 링컨과는 달리 합법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며 현재 거리에서 불법적인 카드도박을 벌이며 도둑질도 하는 인물이다. 그는 링컨에게서 카드도박을 배워 그들이 추구해온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자 한다. “경제적 기회”(19)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는 그는 링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카드도박을 계속하는데, 그가 불법적인 도박을 위해 점유하는 공간은 거리이다. 링컨이 부스의 무모한 행동을 만류하지만, 부스는 오히려 링컨이야말로 “내 길을 방해하는”(YOU STANDING IN MY WAY 19) “불쌍하고 맥빠진 톱아저씨 같은 인물” (pathetic limp dick uncle tom 19)이라며 백인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링컨을 비판한다. 부스가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부분 백인과는 달리 흑인으로서 뚜렷한 직장을 잡기 힘든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링컨과 부스가 이러한 내부식민지적 상황에 처한 것은 단지 백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그들의 어려움은 각각 정부를 둔 그들의 부모가 자식들을 남겨두고 떠나버린 데도 원인이 있다. 그들의 어머니는 “목요일 남자”(Thursday man)와 함께 그들의 아버지를 배반했으며, 그 후 그들의 아버지도 그들을 떠나버렸다. 이러한 떠남의 주제는 링컨과 부스에 게도 해당된다. 링컨과 부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 여인들도 그들을 배반한다. 링컨의 부인 쿠키(Cookie)는 그를 집에서 내쫓았으며, 부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레이스는 그가 마련한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을 링컨이 훔쳤다는 이유로 부스는 그를 총으로 살해하는 데서 가정 내의 비극이 절정에 이른다. 이렇듯 가정의 문제는 그들이 주변화된 공간에 위치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백인들에 비해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피부색의 차이 때문인 것이다. 흑인은 백인에 의한 공간 분할에서 언제나 차별적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 『노예선』에서 흑인이 백인 노예주에게 노동력을 통한 부를 가져다주는 “검은 금”이듯이, 링컨도 백인에 의해 통제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예-기계 그 이상은 아니다.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부스는 링컨과의 카드게임에서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실크 스타킹에 든 500달러를 걸지만 지게 되고, 또 링컨이 이 돈을 훔쳐가자 링컨을 살해하게 된다. 이러한 살인행위는 흑인의 삶의 궁핍을 반영하는 사건으로 근본적으로 흑인들간의 갈등보다는 오히려 흑백간의 차별적 공간의 분할을 통해 생산된 억압적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잔-로리 팍스가 엘리자베스 판스워드(Elizabeth Farnsworth)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적하듯이, 링컨과 부스는 “역사의 무게와 운명의 무게”(the weight of history and the weight of destiny)를 느끼게 하는 인물들이다.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없지만, 그들의 일상적 공간은 그러한 제도에서 작동하는 차별적 공간화가 체계화된 지점이다. 비록 흑인공간이 사회의 지리적 분할에 기초한 감금의 공간일지라도, 그 공간은 흑인의 탈식민적 욕망에 기초한 ‘공간의 정치’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지점이다. 극의 초반에 부스는 형제간의 화합을 통해 백인 지배체제의 차별적 공간화에 저항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에 기초한 차별적 공간화가 이뤄진 미국흑인의 일상적 공간은 내부식민지나 다름없다. 이는 바로 백인의 공간 개념에 입각하여 생산된 거리두기의 정치성이라는 백인의 집단적 욕망의 산물이다.

V. 결론

미국 흑인극에 반영된 미국흑인의 일상적 공간은 공간의 분할에 의해 차별이 작동하는 주변화된 지점이다. 미국흑인극의 배경이 된 플랜테이션, 노예선, 게임장이라는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일종의 ‘노예화된’ 그들의 직업—예컨대 『물라토』에서 농장의 흑인 노동자들 및 히긴스의 운전수, 『노예선』에서 노예, 『승자/패자』에서 도박사 및 링컨대통령의 암살 장면을 재연하는 역할 등—은 차별적 공간화를 통해 형성된 흑인의 내부식민지적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차별적 공간화는 자신들의 공간을 보호할 뿐 아니라, 공간의 분할을 통하여 확보되는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백인들의 욕망의 산물이다. 백인 지배체제는 개인이나 사회그룹간에 순수하게 주어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유지에 유리하도록 사회나 공간의 분할을 유지하거나 창조하기 위하여 차이를 생산 및 재생산한다. 이렇듯 차별적 구조화로 생산된 미국흑인의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사회적 공간은 억압이 내재된 일종의 감금의 공간이다.

하지만, 『물라토』, 『노예선』, 그리고 『승자/패자』에서 미국흑인이 거대한 감시조직 속에 감금되어 있다는 점만이 부각된 것은 아니다. 각 작품에는 공간의 회복을 위한 흑인들의 대항 이데올로기가 탈식민적 욕망의 형태로 표상되어 있다. 차별적 공간화와 분할의 전략에 대해 『물라토』에서는 백인 농장주가, 『노예선』에서는 노예경매인 및 흑인 배반자가 공격의 대상이 되어 살해되는 호전적 저항성이 그려져 있다. 이와는 달리 『승자/패자』에서는 흑인들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백인 지배체제를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을 택한다. 『승자/패자』는 나머지 두 작품과는 달리 시대적으로 최근에 쓰여진 작품으로 흑백간의 직접적인 갈등보다는 오히려 형제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승자/패자』는 그들의 갈등의 이면에 놓여있는 흑인의 내부식민지적 상황을 그려냄으로써 백인지배체제의 억압성을 비판적 입장에서 조명한다.

흑인들간의 갈등이 극적 구조를 이루는 『승자/패자』와 마찬가지로 흑백간의 갈등이 극의 주요 구조를 이루는 『물라토』와 『노예선』에서도 흑인의 억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 흑인들간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갈등은 주로 내부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반응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흑인들은 크게 현재의 체제에 순응하는 인물과 이에 저항하는 인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다수의 흑인들, 동화주의자인 늙은 탐이나 흑인 목사, 그리고 링컨처럼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인물들이다. 두 번째 부류에는 로버트, 『노예선』의 다수의 흑인, 그리고 부스가 있다. 두 번째 부류의 인물들은 백인 지배체제를 의문시하며 이를 해체하고자 시도하는 인물들이다. 로버트가 흑백간의 평등을 요구하고, 『노예선』의 다수의 흑인들이 그들에게 고유한 그들만의 자율적 공간을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또 부스가 경제적 성공을 통한 흑백간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종에 기초한 차별적 공간화를 비판하고 흑인의 자율적 공간을 욕망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휴즈, 바라카, 팩스가 사용하는 갈등 구조가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부색을 통한 차별이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며 백인 지배체제의 권익을 영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 줄 뿐 아니라 백인의 억압체제에 저항하는 흑인의 탈식민적 욕망을 형상화한다.

미국 흑인극에서 형상화된 전복적 행위와는 달리 미국흑인의 실제적 일상 공간에서는 흑인의 해방을 향한 시도는 피부색에 기초한 공간분할의 억압성에 비하면 미약한 힘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비록 흑인들의 전복적 시도가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백인 지배체제에서 그들이 겪는 내재적 배제는 근본적으로 극복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흑인들이 일시적으로 백인의 공간체계를 타파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해방공간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의 흑인의 삶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백인과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닐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논의된 미국 흑인극은 미국흑인의 일상적 공간에 작동하는 백인 지배체제의 억압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백인의 지배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 주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흑인의 해방의 필요성을 그려낸 극이다.

주제어 공간, 문화지리학, 탈식민, 공간적 분할, 휴즈, 바라카, 팩스

- ㄷ. Baraka, Amiri. *Home: Social Essays*. New York: Morrow, 1966.
- ㄹ. _____. *Slave Ship. The Motion of History and Other Plays*. 1967. New York: Morrow, 1978. 129-45.
- ㅁ. Brecht, Stefan. "LeRoi Jones' *Slave Ship*." *Drama Review* 14.2 (1970): 212-19.
- ㅂ. Brustein, Robert. "Robert Brustein on Theater: A Homeboy Godot." *The New Republic* 226.18 (2002): 25-26.
- ㅅ. Farnsworth, Elizabeth. Interview with Suzan-Lori Parks.
- ㅇ. www.pbs.org/newshour/conversatin/jan-june02/parks_4-11.html(April 11, 2002)
- ㅈ. Hay, Samuel A. *African American Theatre: An Historical and Critical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P, 1994.
- 차. Hatch, James V. and Ted Shine, ed. *Black Theatre USA: Plays by African Americans*. New York: Free Press, 1996.
- 카. hooks, bell. *Yearning: Race,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Boston: South End, 1990.
- 타. Hughes, Langston. *Mulatto. Black Theatre USA: Plays by African Americans*. Ed. James V. Hatch and Ted Shine. New York: Free Press, 1996.
- 파. Jackson, Peter. *Map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1989.
- 하. Keith, Michael and Pile, Steve, ed. "The Place of Politics." *Plac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3. 22-40.
- 거. Laclau, Ernesto and Chantal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 1985.
- 너. Lefebvre, Henri. "Reflections on the Politics of Space." Trans. M. Enders. *Antipode* 8 (1976): 30-37.
- 더. Massey, Doreen. *Spatial Divisions of Labou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Basingstoke: Macmillan, 1984.
4. Minh-Ha, Trinh T. *When the Moon Waxes Red: Representation,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1991.
- 가. Parks, Suzan-Lori. *Topdog/Underdog*.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2002.
- 나. Said, Edward.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1978.
5. Soja, Edward. *Postmodern Geographies*. London: Verso, 1989.
6. _____. *Urban Interpretations*. Cambridge, MA: Blackwell, 1996.
- 7.
- 8.
- 9.
- 10.
- 11.

Differentiated Spatial Divisions and Decolonizing Desire in African American Drama

Abstract

Jung, Byung-Eon

Drawing on theoretical work within cultural geography relating to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space, this essay examines both the racialized nature of internally colonized space for African Americans and their desire for decolonization as reflected in three plays by African American writers: Langston Hughes' *Mulatto*, Amiri Baraka's *Slave Ship*, and Suzan-Lori Parks' *Topdog/Underdog*. It is argued that spatial divisions function as a determining factor in confining African Americans within the internally colonized space that is exemplified by these writers in such oppressive spaces as a plantation, a slave ship, or the claustrophobic room for Lincoln and Booth. Whites' concept of space also works for controlling African Americans in terms of race, power, and internal colonization. However, instead of accepting their confinement within their "appropriate" space, African Americans struggle against the white oppressive system that functions to produce and reproduce black space. Their politics of decolonization are ultimately directed toward resistance to oppression and confinement through the differentiated distance of space. While exposing the mechanism of whites' spatial dominance, this reading therefore explores African Americans' strategies for obtaining the freedom they need in order to "live out" as autonomous subjects in their everyday life.

Key Words space, cultural geography, decolonization, spatial division, Hughes,
Baraka, Parks

정병언 (단독연구)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bejung@pusan.ac.kr

논문투고일: 2004년 10월 31일

논문심사일: 2004년 11월 7일 ~ 21일

게재확정일: 2004년 12월 3일

K C I